발 행 처 | 한국자유총연맹(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발행·편집인 | 박종환
등 록 일 | 2010년 4월 21일

KFF 뉴스

제191호 〈월간 · 등록번호 서울 아 01215〉 www.koreaff.or.kr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Tel. 070-7122-8042

자유·행복·번영·평화로 국리민복 공감시대 열어 나갈 것

제18대 박종환 총재 취임…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다짐

박종환(朴鍾煥) 총재가 국리민복 가치관 확산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직 활성화 기반 조성을 약속하며 제18대 총재로 선출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한국자유총연맹 건설의 큰 역할을 맡게 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월 14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전 봉은사 주지인 명진 스님, 김진명 작가,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 선임자, 백성호 연변대 교수, 박항서 베트남축구 국가대표 감독 등 주요 내빈과 본부 임원 및 지방 조직간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박종환 총재 취임식'을 거행했다.

김홍국 수석부총재의 취임선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7개 시·도지부 기수단 입장, 자유총연맹기 전달, 제18대 총재 선임증 수여, 축하꽃다발 전달, 총재수락 연설, 주요 내빈 축사, 축가, 기념촬영의 순으로 열렸다.

박종환 총재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새롭게 정립한 국리민복의 가치관을 널리 전파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치유할 것"이라 강조하고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민간교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총재는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경색된 한일관계의 발전,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양국 시민단체 간 교류를 갖겠다"며 "이를 통해 경직된 관계를 개선하고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제18대 박종환 총재 취임식에 참석한 내빈과 본부임원, 지방 조직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세웅 이사장
"2019년 350만 회원 힘모아 자유의 가치 지켜내길"

명진 스님
"남북화해협력·분단극복 선봉에서 평화시대 이끌어야"

김진명 작가
"국리민복의 새로운 국가관과 사회관 매우 높이 평가"

윤성이 제19대 동국대학교 총장 선임자,
박항서 베트남축구국가대표 감독 등 참석

특집 I 제18대 박종환 총재 수락 연설문 12면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9년도 제2차 이사회가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샤인홀에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이사, 감사, 시·도지부 회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회의록, 2018년 사업실적, 현안사항 보고에 이어 부의안건인 '2018년도 결산(안) 심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2019 정기총회, 제18대 총재로 박종환 선출

2022년까지 3년 임기 시작

박종환 총재가 2월 14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젝시가든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국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제18대 총재로 선출됐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1월 7일 서울 자유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총재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총재후보자추천위원회는 1·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제18대 총재 후보자로 박종환 총재를 선정했다.

이어 2월 1일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한 후 제18대 총재 선임의 건을 제4호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의 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 단독후보인 박종환 총재가 2019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제18대 총재로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홍국 수석부총재를 비롯해 김성태·허상호·한승경·남일·전인범·장덕수 부총재, 김평환 사무총장, 시·도지회 회장단 시·군·구지회 회장 등 309명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제18대 총재 선임의 건에 앞서 이사회가 심의·상정한 2018년도 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규정 개정(안), 임원선출 및 연임의 건을 승인했다.

신규 임원과 연임자는 다음과 같다. 신규 : 이연주 부총재(현 한국유권자연맹 고문), 오종현 이사(현 ㈜비더블유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송태섭 감사(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연임 : 김성태 부총재(현 ㈜동일해운 대표이사).